

도토리과 상수리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개암나무를 처음 본 것은 젊은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를 읽고도 아주 오래 뒤의 일이다.

갓 볶은 커피냄새도 경험해보고, 황갈색 플라타너스의 넓은 잎들도 태워보았지만 잘 익은 개암열매 냄새는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개암열매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비슷하게 생긴 도토리와 상수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도토리는 참나무류의 열매를 총칭하는 말로서, 흔히 참나무를 도토리나무라고도 부른다.

참나무의 종류로는 굴참나무·졸참나무·신갈나무·떡갈나무·상수리나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수리나무의 열매를 특별히 상수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수리는 도토리의 일종인 셈이지만 엄격히 말한다면 도토리나무란 없다. 이들 나무는 잎도 가지도 모두 비슷비슷한 데다 열매 또한 닮아있어 그 구별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일본의 육설 가운데 「바가야로(馬鹿野郎)」가 있다.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큰 욕이라 한다.

도토리와 상수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시집(詩集)에서 도토리와 상수리를 재미있게 일러주었다.

“드러누워 배꼽에 얹어놓고 흔들었을 때 굴러 떨어지면 상수리, 잘 박혀 있으면 도토리, 꺾구멍에 박아 넣어도 쭉 빠지면 상수리, 큰일 났다 싶어지면 도토리,

꼬마들 구슬치기 대용이 되면 상수리, 그렇지 못하면 도토리...

떡메 맞고 후두둑 떨어지는 건 상수리, 여물어 저 혼자 떨어지는 건 도토리...

떨어질 때 산토끼 다람쥐가 깜짝 놀라면 상수리, 아무도 모르면 도토리.

목을 췌을 때 빛이 나고 찰지면 상수리, 거무튀튀하고 툭툭하면 도토리

잠깐 동안 이만큼 주울 수 있으면 상수리, 찾아다니다가 발목만 빼는 건 도토리

갓난아기 불알만 하면 상수리, 할아버지 썩은 송곳니만 하면 도토리.”

결국, 상수리와 도토리의 생김새와 용도는 비슷하지만 상수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둥근 것을 알 수 있다.

개암열매는 상수리보다 약간 크고 알밤보다 조금 작으며, 모양은 상수리와 비슷하지만 밤처럼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다. 개암을 아는 것은 이래저래 더욱 어렵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개암나무 열매는 소중한 것이었다. 구황식물로, 약재로, 정월대보름의 부럼으로 쓰였으며 제사상에도 올린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개암열매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히면 잡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흠초야의 신흠에 개암기름으로 불을 켜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커피향, 헤이즐넛(hazel nut)」이 다름 아닌 개암 열매란다.